

#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미-중 외교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응



모 준 영 (고려대학교)  
<augustine227@hanmail.net>

## 국문요약

중국은 두드러진 성장 능력을 보여 왔다. 이제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국가가 된 중국의 부상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다. 꾸준한 두 자리수의 국방비 증강 덕분에 중국의 군대 또한 능력 면에서 선진화되었다. 미-중 간의 간극이 좁혀짐에 따라 미-중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한국으로서는 그 변화와 대응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외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한국이 외교 행위만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분명 그 역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외교 관계이다. 특히 우호적, 협력적 외교 관계의 조성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국의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비대칭의 삼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한-미 관계가 미-중 관계,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가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3국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분석틀로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구조를 소개하고, 미국-중국-한국 간에 시기별로 나타난 사건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3국 간의 삼각관계 양상을 구분한 후에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중국의 부상, 약소국, 전략적 삼각관계, 디트머, 한국 외교

## I. 서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제정치의 화두는 중국의 급부상과 그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 선택이다. 11조 달러가 넘는 경제규모로(IMF 2015) 소위 G2로 일컬어지는 중국에게서 냉전시기의 약소국과 같은 외교안보행태(Mandelbaum 1988, 193)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SIPRI 2015, World Military Balance 2015), 항공모함을 구입·진수시키는 등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우주전쟁을 준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역내 다자간 대화기구인 '보아오 아시아포럼'(博鳌亚洲论坛)과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창설을 주도하고, ASEAN+,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등장과 함께 미중관계의 새로운 형태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설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 에너지 등의 하드파워를 비롯해 소프트파워에 있어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고(Nye 2010, 2-12), '평화로운 발전'과 '조화세계'를 강조하면서 현상타파 세력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중국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이정남 2010, 39; Lampton 2009, 25-29), 이미 미-중 간의 경쟁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sup>1)</sup>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이들 양국 사이에서 영향력과 지위 확대의 경쟁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규모 해상훈련,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 등 미국의 對중국 봉쇄정책에의 참여 요구 등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으로서는 그 변화와 대응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외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한국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외교행위만으로 상황을 타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외교관계 개선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외교 관계는 이와 같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논리를 다르게 작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 관계가 반복된다고 우호적, 협력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

1)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기지의 미군 주둔 결정 발표, 미국의 환태평양 협력동반자 관계(TPP)의 적극 추진 표명 등을 통해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 후에는 아시아·태평양으로 선회[Pivot to Asia-Pacific]와 재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으로 바꾸어 불렀다) 정책을 더욱 가속화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외교 행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모겐소(Morgenthau 1973, 174-7)나 한델(Handel 1981, 45-46) 등이 지적했듯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입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보다 커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국의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비대칭의 삼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한-미 관계가 미-중 관계,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계가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중 관계가 한-미 관계,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외교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3국의 외교 관계를 살펴볼 분석틀로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구조를 소개하고, 미국-중국-한국 간에 시기별로 나타난 사건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3국 간의 삼각관계 양상을 구분한 후에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 II. 전략적 삼각관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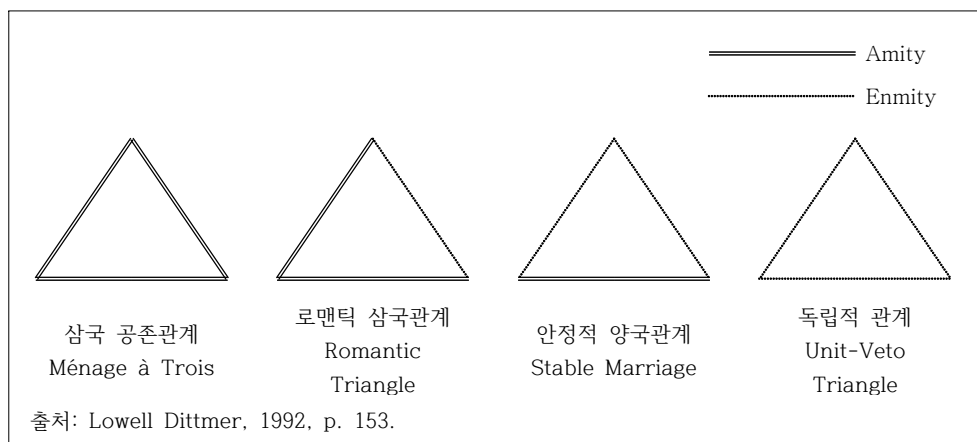
국가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하딩(Harry Harding)이 지적했듯이 이제 국제정치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Harding 2004, 321)<sup>2)</sup>. 삼각관계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슈웰러(Schweller 1998)처럼 3개 참여국들의 상대적인 힘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삼각관계의 안정을 예측하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디트머(Dittmer 1981; 1992)처럼 삼각관계 내 3개의 양국 간 관계(bilateral relationship)를 다루는 연구이다.

본 논문은 3개 국가들의 양국 간 관계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디트머는 국가들이 합리적 행위자들로서 양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쌍(pair)이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우호(amity)적이라 함은 그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경향이 부정적인 경향보다 더 누적된 것을

2) 삼각관계 분석틀은 강대국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는데, 가령 미국, 중국, 일본 간의 관계,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북한 간의 관계 그리고 미국, 남한, 북한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최운도 2003; 이상숙 2009; 서보혁 2008; 김연수 2007 등)이 있다.

의미하고, 반대로 적대(enmity)적이라 함은 그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경향이 긍정적인 경향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정 참여국의 다른 참여국들에 대한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들 간에 벌어진 주요 사건 내지 이슈를 통해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 각각 우호와 적대로 재분류해 적용하고자 한다.

디트머는 미국-중국-소련 3개국 간에 만들어지는 3개 쌍의 양국 간 관계를 그 양국 간 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제3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상황들을 제시했는데, 그 상황들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4가지로 압축된다. 즉 3쌍의 양국 간 관계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삼국 공존의 관계(Ménage à Trois)’, 1개의 중심축(pivot) 국가와 2개의 진영(wing) 국가 간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로맨틱 삼국관계(Romantic Triangle)’, 3국 중 하나의 양국관계만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나머지 양국관계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안정적인 양국관계(Stable Marriage)’ 그리고 어떤 국가와도 우호적이지 않은 ‘독립적 관계(Unit-Veto Triangle) 등을 제시했다(아래 그림 참조).<sup>3)</sup> 이와 같은 삼각관계는 외교 관계인만큼 불변의 것이 아니고, 각국의 국력과 선호의 변화에 따라 재설정 된다. 이 중 독립적 관계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전략적 삼각관계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배제하고 3가지 유형으로 검토할 것이다.



3) 각각 ‘3자 동거관계’, ‘로맨틱 삼각관계’, ‘안정적 결혼관계’ 등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로 바뀌어서 ‘삼국공존관계’, ‘로맨틱 삼국관계’, ‘안정적 양국관계’로 사용하는 것임.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삼각관계 도출은 27개의 가능한 형태(indecomposable form)로부터 정리한 브람스의 논문(Brams, 1969, 255-8)을 참조할 것.

물론 디트머가 제시한 분석틀 사용에서 다른 주변국들보다 강한 국가로서 국력이 대등했던 미-소-중 간의 관계를 다뤘었던 것과 달리 한-미-중 간에는 국가들 간의 국력이나 위상의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디트머가 제시한 참여조건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중 3국 간에 “모두가 상대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미, 한-중, 미-중으로 관계를 수립할 때 각각 중국, 미국, 한국을 염두에 두며, 그런 양국 간의 관계가 변화가 생길 때 균형에 변화를 주고 있고, 비록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어 오기는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선 국가들 간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을 한-미-중 간에 전개된 사건들을 살펴보겠다.

### Ⅲ. 시기별 한-미-중 관계 변화

#### 1.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이전 (1949-1976)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전부터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세력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Stueck 2002, 17). 하지만 6.25전쟁을 치르면서 미-중 간에 형성된 적대적 분위기는 60년대 말 중-소 갈등이 표면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64년 2월 마오쩌둥은 프랑스의 방문단에게 “만일 미국이 대만으로부터 철수만 한다면 우리와 동지가 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발언<sup>5)</sup>해서 미국과의

4) 이 분석틀에는 ‘참여의 규칙’(rules of entry)과 ‘운영의 규칙’(rules of play)이 있는데, ‘참여의 규칙’에는 분석자들이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 즉 지리나 인구, 경제 발전, 군사력 등의 물리적 자원(material assets)과 국제체제 내에서의 기능(functional role) 등을, 참여국들이 규정한 주관적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즉, (1) 참여국 모두가 참여국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2) 각 참여국은 상대 참여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때 제3의 참여국을 염두에 두는가? (3) 특정 참여국의 “이탈”(defection)이 다른 두 참여국들 간의 전략적 균형에 변화를 준다고 여겨지는가? (4) 각 참여국은 언제나 다른 두 참여국들과의 관계 조정(realignment)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등이다. (Dittmer 1992, 148-50). 또한 ‘운영의 규칙’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국가 간에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참여국이 다른 두 참여국들에 대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성향(disposition)을 갖는다는 것이다. (Dittmer 1992, 152-4).

5) "Mao Asserts U.S. Can Win Amity of Red China by Leaving Taiwan," *New York Times*, Feb. 21, 1964

관계 개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해 3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풀브라이트(James William Fulbright)는 ‘舊신화와 新현실’(Old Myths and New Realities)이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기도 했다(김중섭 2011, 5). 그러나 이 시기의 미-중 간의 관계 개선 시도는 퉁킹만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미-중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닉슨 행정부였다. 이미 1967년에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Nixon 1967, 113-125)했던 닉슨(Richard M. Nixon)은 1969년 취임하는 날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Kissinger 1979, 168). 1971년 7월 9일 키신저의 방중, 1972년 닉슨의 방중 그리고 ‘상하이 공동선언’ 발표 등 임기 내에 중국과의 수교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은 1971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었고, 일시적이거나 양국 간에 교역이나 인적교류도 급증했다(Choudhury 1982, 88-89).

하지만 1974년 대만 문제가 제기되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후임인 포드 대통령은 1976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의 관계 단절’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도 추진할 수 없었다(Sutter 1978, 112). 이로써 미-중 간의 관계 개선 및 삼각관계 구성은 잠정 연기되게 되었다.

이 시기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과정 중에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대한 구상이 변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약화되었고 미국의 전략 구상에서 소외되었다.<sup>6)</sup> 중국과의 화해·협력 및 관계 개선과 아시아 국가들의 자주방위를 골자로 한 1969년 7월 25일의 ‘닉슨 독트린’에 의거해 한국은 1970년 7월 주한미군 철수를 통보받았고, 1971년 6월 30일까지 2만 명의 주한미군 병력이 철수했다(차상철 2004, 146-8). 더욱이 1971년 7월 방중 당시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한 저우언라이(周恩來)에 대해 키신저(Henry Kissinger)는 “(미-중) 관계가 예상대로 진전되 ... 면, 닉슨 대통령의 다음 임기 중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철수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박영호 2004, 14 재인용). 또한 키신저는 방중 중에 당시 북한과 함께 중국이 비난해 오던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

<http://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9505EED61530E033A25752C2A9649C946591D6CF> (검색일: 2015년 3월 20일)

6) 1968년의 일련의 북한의 도발들, 1.21 청와대 기습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미간의 의견차이가 노정되었다.

유엔사의 해체도 논의했는데, 그 결과 UNCURK가 해체되었고, 유엔사는 정전 기능만 유지토록 하고 연합사를 새로 창설했다(한석표 2013, 49-68; 131-156). 이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한-미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간의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한국은 소위 6.23선언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시도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협상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했으며, 1971년 8월 20일 회담이 시작되었다.(Sung-Hack Kang 2011, 16)

이 기간에 공식적인 삼각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국 간의 관계 속에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한-중, 미-중 관계는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양국관계’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 2. 미-중 수교 이후 (1977-1992)

1977년 취임한 카터 대통령은 그해 3월 유엔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수교를 하나의 전략목표로 제시했다.<sup>7)</sup> 복권되어 실권을 장악한 중국의 덩샤오핑 역시 소련의 확장을 우려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7년 8월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국무장관의 첫 번째 방중은 별 소득이 없었다(Kissinger 2011, 349). 대만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1년 후 카터 대통령은 다시 대중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1978년 5월 17일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안보 보좌관을 북경으로 보냈다. 이때 브레진스키는 1972년 닉슨이 저우언라이에게 밝혔던 다섯 가지 원칙<sup>8)</sup>을 재확인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다(Kissinger 2011, 350-351). 이후 미-중 간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해 갔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제시한 ‘미-대만 동맹조약 폐기, 철군, 대만과의 단교’를 수용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관심 표명’을 받아들였다. 양국은 1978년 12월 26일 수교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1979년 1월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James Mann 2000, 82-92). 이후 미국은 중국의 근현대화를 지원했고, 중국 내에 소련에 대한

7) Jimmy Carter, "United Nations-Address Before the General Assembly" (March 17, 1977)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7183> (검색일: 2015년 3월 28일)

8) 다섯 가지 원칙은 ‘하나의 중국’ 정책 확인, 대만 독립 운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공약, 대만 내 일본군 배치라는 가설에 대한 미국의 방지, 북경과 대만 간의 모든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원, 지속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약 등이다.

첩보 기지를 설치하는 등 협력을 강화했다(James Mann 2000, 95; 111-4).

그 뒤를 이은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그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1982년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줄여나가겠다는 ‘8.17 공동선언’을 발표했다(Cohen 2010, 228). 이후에도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과학,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1984년 4월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1985년에는 이에 대한 답방으로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리셴넨(李先念)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 최고위급 지도자들의 교류가 이뤄졌다.

이처럼 고조되던 미-중 간의 협력 관계는 천안문 사태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중단되지 않았다. 당시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중국 근무 경험이 있는 인물로, 소련과의 대립에 있어 중국이 중요한 ‘전략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Sutter 2013, 193; Cohen 2010, 232)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도 의회, 언론, 여론의 요구에 못 이겨 천안문 사태에 대한 규탄에 동참하기도 했고, 제재 조치도 취했으며, 국제금융기관에 신규 중국 차관을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결정적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천안문 사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 특사를 파견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회동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있어 중국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박창권 2010, 34). 이에 중국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도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한-미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 카터 행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 강행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인권탄압 중지 요구는 한-미관계를 긴장시켰다. 실제 카터 행정부는 1977년 3월 공군 및 병참병력 14,000명을 제외한 모든 지상군 병력을 1982년까지 철수시킬 것임을 천명했다(Buss 1982, 148).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시도(조철호 2003, 435-68)와 강력한 의회의 반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는 1978년 말까지 3,600명만을 철수시키는데 그쳤고(강성학 2004, 59), 다시 1979년 7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주한미군 전투부대의 추가 철수를 1981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김명섭 1999, 64-72).

이전 정부와 달리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은 일시적으로 한-미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sup>9)</sup>, 이미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전략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 뒤를 이어 1989년에 취임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주한미군 3단계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0). 북핵 문제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 계획은 미-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개선되는 경우 한-미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한-미 간에 거리가 생기는 동안 한-중 간에는 새로운 외교관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1983년 5월 5일 선양에서 상하이로 향하던 중국 민항기가 납치되는 사건으로 한-중 정부 간 공식 접촉이 이뤄진 것이다. 5월 10일 양국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한 최초의 각서에 서명 했다. 이후 한-중 정부관리 간 교류와 접촉이 계속 되었다(신상진 외 2013, 43-45).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는 주로 경제 부문에서 비공식적 교류가 이뤄졌다. 개혁·개방을 모색하던 중국이 경제모델로서 한국을 택했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중국은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 중 정치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Jae Ho Chung 1988, 1034).

특히 이미 1987년 대통령 유세 중 임기 내 중국 방문을 호언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노력도 한-중 관계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그는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자 부시 대통령과 마가렛 대처 수상 등에게 중국에 대한 비난 자제를 요구했고, 그러한 자신의 노력을 중국에 알림으로써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이에 1990년 중국은 남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그해 말 베이징과 서울에 영사 기능을 수행하는 무역사무소가 설치됐다(Oberdorfer 1997, 242-5). 또한 한국은 1991년 중국이 타이완,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최국으로서 중국의 요구대로 중국만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타이완은 국가가 아닌 '중국 타이베이'(中國台北)라는 지역 자격으로 가입토록 했던 것이다(신상진 외 2013, 47). 그 결과 1992년 1월, 중국 외교부는 남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건의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8월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하고 한중 수교가 이뤄졌다. 이로써 6.25전쟁 이후 40년 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

9) '동맹국 우선정책'을 택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또한 '동시다발 개입전략' 개념이 1983년 팀스피리트 훈련부터 본격 도입되어 미국의 안보 공약이 강화되기도 했다.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로 인해 생각만큼 많은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중의 삼각관계 양상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에 해당되는 한국이 '로맨틱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 3. 한-중 수교 이후 (1993-2001)

이미 1992년 대통령 선거 유세 중 중국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했던 클린턴(Clinton)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최혜국(MFN) 대우 연장과 연계하고자 했다(Sutter 1996, 33-34). 그러나 당시 경제 및 외교 업무를 담당한 참모들의 설득으로 클린턴은 정치범 석방과 티베트 인들의 유산 보호,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대한 방해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최혜국 대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고(Cohen 2010, 251-2), 미-중 간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클린턴 정부는 '관여 및 확대'(Engagement & Enlargement) 전략에 의거 적극적인 대중 협력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1995년 대만문제로 인해 다시금 미-중 간의 우호적 관계에 위기가 왔다. 미국이 대만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를 거부해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해 7월과 다음해 2월, 대만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7함대의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해 키신저와 닉슨의 방중 이후 최초로 미-중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조성되었다(Cohen 2010, 256-7).

클린턴 행정부 2기는 악화된 미-중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포괄적 관여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을 실시했다(Shambaugh 1997, 242-4). 이 정책을 통해 클린턴과 장쩌민(江澤民)은 1997년과 1998년에 정상회담을 했고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 정상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대만문제, 한반도, 동북아 안보, 남중국해 및 난사(南沙) 군도, 군사적 투명성 등 다양한 안보 문제를 협의했고,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를 수립했다. 또한 1999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sup>10)</sup> 그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국 내부의 개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법치를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중국을 변화시킬

10) 1999년 4월의 WTO 가입 거절과 베오그라드 오폭 사건으로 미-중 간에 수개월 동안의 냉각기가 있었다.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역량으로부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sup>11)</sup> 그해 11월 15일 미중 양국은 중국의 WTO 가입에 합의했고, 미중 간 군사교류도 재개하게 되었다.

한편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도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다. 장쩌민(江澤民) 지도부는 중국의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한반도 안정과 더불어 전통적 지정학적 이익의 확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 및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에 수교 이후 양국 간 고위급 회담 및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Jia Hao et.al, 1992, 140-1). 특히 천안문 사태 이후 미-중 간 갈등 관계는 한-중 간의 '선린외교'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미국의 對중국 압력과 견제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확보한다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었다. 즉 한반도가 청일전쟁, 한국전쟁 등에서 일본, 미국 등 해양세력들이 중국대륙을 공략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사례를 상기하면서, 미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對중국 견제를 방지하는 한반도의 지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동률 2002, 52). 그 결과 한-중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선린우호 협력 관계'는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는 1990년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외관계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동반자 외교 전략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수렴된 결과였다(김홍규 2009, 302). 즉 안정된 양국 관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를 극복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었다. 이에 이 시기에 한-중 양국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작했다. 조성태(1999, 8), 김동신(2001, 12) 등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츠하오텐(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답방(2000, 1)하는 등 군 고위급들의 교류가 이뤄졌다. 2000년 10월 중국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방한시 한-중 양국은 군사·안보 분야까지 협력하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에 합의했다(Xiaoxiong Yi 2000, 82).

한-중 간의 관계가 가까워진 반면에 한-미 간에는 갈등이 불거진 시기이기도 했다. 북한의 NPT 탈퇴를 비롯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주장하고 있었던 김영삼 정부의 의사와는 달리 클린턴 정부가 국제적 문제로 보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자

11) "Clinton warns against isolating China," CNN, April 7, 1999.

<http://edition.cnn.com/ALLPOLITICS/stories/1999/04/07/clinton.china/>(검색일: 2015년 3월 29일)

불만을 표출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를 미국이 직접 개입해 다루는 경우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는 한국, 미국, 중국 3국이 한-미 간에, 혹은 미-중 간에 우발적인 사건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각국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불완전한’ 삼국 공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 4. 한미동맹 재조정기 (2002-2008)

대통령선거 유세 기간 동안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하던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클린턴 행정부보다도 더 공격적인 대중 정책을 취했다. 2001년 4월 미 정찰기(EP-3) 사건은 양국 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Sutter 2010, 144-5). 9.11 사건은 그와 같은 미-중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테러 발생 다음 달에 상하이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부시는 장쩌민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계를 ‘건설적 협력 관계’<sup>12)</sup>로 규정하고, 반테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자위권 발동으로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미국의 반격을 인정하는 결의안 제1368호에 찬성했다. 또한 이 시기에 나온 ‘중국 위협론’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3년 12월 미국을 방문해 화평굴기(和平崛起)론을 제시했고,<sup>13)</sup>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조화세계론을 200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그해 9월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갈등보다는 협력을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을 대만해협에 국한된

12) 이미 그해 6월 중국의 Tang Jiaxi(唐家璇) 외교부장이 Colin Powell(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건설적 협력관계’를 제안했었고, 7월 5일 장쩌민 주석은 부시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건설적 협력관계의 수립을 희망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별도로 군사적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13) 李红旗·段吉勇, “温家宝哈佛演讲 提出广泛文明对话和文化交流” <新华网> (2003. 12. 11) [http://news.xinhuanet.com/world/2003-12/11/content\\_122482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3-12/11/content_1224824.htm) (검색일: 2015년 3월 29일)

14) 胡锦涛, “努力建设持久和平、共同繁荣的和谐世界” <新华网> (2005. 9. 16) <http://www.china-un.org/chn/zt/snh60/t212365.htm> (검색일: 2015년 3월 29일)

것이 아닌 역내 위협으로 규정했고(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5, 12), 2006년 발간된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도 중국을 “군사적으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지목했다(Secretary of Defense 2006, 29-30).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중 간의 협력적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한-미 간의 갈등은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이를 규탄하는 촛불시위는 한국 내 반미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같은 해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운용 시인으로 촉발된 2차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이와 같은 균열은 2003년 대미 자주노선을 천명한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한층 심화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미국에 비판적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이기완 2011, 22). 이에 미국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2003년 3월 18일 럼즈펠드(Donald Rumsfeld)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군을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 떠난다”는 발언을 했다(연합뉴스 2003. 4. 4). 또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예고된 계획이기는 했지만, 2003년 4월 9일 제1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기지 통폐합과 재배치가 제기되었고, 그해 6월 제2차 FOTA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1만 2천 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04년 5월에는 주한미군 제2사단 1개 여단의 이라크파병 결정을, 2004년 6월에는 2008년 12월 말까지의 주한미군 1만 2,500명의 감축계획을 한국정부에 통고했다.

이처럼 한-미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우호적으로 이끌고 갔다. 한국 측의 제의로 200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했고, 2004년 정상회담에서는 10대 협력 과제를 선정하는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증진되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관계 개선에 선뜻 나섰던 것은 중국위협론이 반복되어 제기되고 있고, 점차 미-중 간의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적절한 외교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즉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중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한-중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한국과 협력해 해결함으로써 역내의 책임대국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특히 2008년 5월,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데, 이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을 보면서 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 결과를 반영한 결정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6자회담을 주도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한-미-중 삼각관계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비중이 보다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한-미 관계가 균열을 보이는 가운데, 한-중, 미-중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미관계가 멀어지면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중심축 국가 역할을 하는 ‘로맨틱 삼국관계’ 유형이 형성되었다.

## 5. 세계 금융위기 이후(2009-2012)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체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2월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클린턴 국무장관의 연설 중 인용되었던 동주공제(同舟共濟)를 거론하며 양국 간 상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 2008. 5. 27). 2009년 개최된 제1차 ‘미·중 전략 경제대화’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맹자의 『진심』(下)에 나오는 경구<sup>15)</sup>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중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동아일보 2009. 7. 29)라고 선언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현실로 인정하고 세계에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발전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The White House). 이에 오바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이 라마의 집권 요구를 거부했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유보했다. 하지만 그해 11월의 방중 시기와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의 충돌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對중국 입장을 변경했다. 2010년 초부터 미-중 관계는 대만 무기판매, 달라이라마 방미, 환율 문제 등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다가 천안함 사태,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 연평도 사태,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 중국의 항공모함 및 스텔스 기 등 최신무기 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이 크게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김홍규 2012, 37). 그밖에도 11월의

15) “산중의 지름길을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지만, 얼마 동안 다니지 아니하면 풀이 우거져 막힌다.”(山徑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爲間不用則茅塞之矣)

G-20 서울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충돌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2011년 1월 후진타오 주석이 방미해 양국간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양국이 “상호 존중, 상호 이익 및 공동 승리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양국 간의 긴장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오스트레일리아 다윈 기지의 미군 주둔 결정 발표, 미국의 환태평양 협력동반자 관계(TPP)의 적극 추진 표명 등을 통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더욱 가속화했다.

2012년 2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미국에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수립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회의 개막식 치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 및 공동 승리의 신형대국 관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sup>16)</sup> 같은 해 7월에 개최된 세계평화포럼의 개막식 치사에서 시진핑 부주석도 다시 한 번 신형대국관계의 수립을 강조했다.<sup>17)</sup>

주석 취임 이후 첫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는 중국의 꿈이 경제번영과, 민족부흥, 인민의 복지라고 설명하고, 중국은 이를 위해 아태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18)</sup> 미국의 지배적 위상이 여전하고,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대결보다는 경쟁과 협조 하에 중국의 위상을 제고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화발전노선을 견지하자”라는 글은 이러한 의도를 잘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의 헌법과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에 반패권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패권주의 문화와 전통이 없으며, 중국은 ‘인’(仁)과 ‘화’(和)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문화를 갖고 있어서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sup>19)</sup>

16) “胡锦涛：推进互利共赢合作 发展新型大国关系” <新华网> (2012년 5월 3일)  
[http://news.xinhuanet.com/world/2012-05/03/c\\_11188296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12-05/03/c_111882964.htm) (검색일: 2015년 3월 29일)

17) 이후에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최대 국가 목표인 소위 ‘중화민족의 부흥(中华民族伟大复兴)’으로 대변되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명료하게 강조한 바 있다.

丁寧，“習近平：推動各大國客觀理性看待彼此戰略意圖” <人民網> (2012년 7월 7일)  
<http://politics.people.com.cn/BIG5/n/2012/0707/c70731-18465859.html> (검색일: 2015년 3월 29일)

18) “习近平总书记深情阐述 ‘中国梦’” <新华网> (2012년 11월 30일)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11/30/c\\_124026690.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11/30/c_124026690.htm) (검색일: 2015년 3월 20일)

19) 戴秉國, “坚持走和平发展道路,” <中國新聞網> (2010년 12월 6일)

한편 한-중 관계는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기대만큼 계속 발전되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한미동맹 복원에 보다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秦剛)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이며 냉전시기의 군사동맹으로는 지금 세계가 직면한 안보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연합뉴스 2008. 5. 27)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더욱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서도 한-중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2011년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의 방중이 성사되어 양국의 군사 관계를 복원하고 고위급 군사대화를 정상화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국 간의 관계는 한미동맹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미-중 관계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안정과 협력이 강조되는 '로맨틱 삼국관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IV. 한-미-중 삼각관계 유형 재정리

각 시기별로 양국 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분석틀 개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국의 선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 간의 사건들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해 각각 호의와 적대로 대체했다. 이러한 사건들의 선별에 있어 자의적인 부분이 있고, 그 사건들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기보다는 한-미-중 3국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삼각관계의 유형들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전제를 소개하면, '비우호'는 한미동맹, 북중동맹으로 인해 양국 간 관계를 불변으로 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국 간의 갈등 관계를 '비우호'로 표시한 것이다. 또한 북중동맹의 경우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 이후 혈맹 관계에서 일반 국가 간 관계로 완화되었다는 점(정재호 2011, 323-347)을 반영해서 비우호로 분류했다.

---

<http://www.chinanews.com/gn/2010/12-07/2704984.shtml> (검색일: 2015년 3월 29일)



### 〈시기별 양국 간 관계와 삼각관계〉

| 시기        | 선호  | 한-미   | 한-중   | 미-중  | 삼각관계          |
|-----------|-----|---|---|--|---------------|
| 1949-1976 | 우호  | 한미동맹  |   | 지도자 / 상하이 공동선언 / UN상임이사국   | (유사) 안정적 양국관계 |
|           | 비우호 | 닉슨독트린 / 미군철수  |   |  |               |
|           | 적대  |   | 한국전쟁 / 북중동맹   | 대만 / 워터게이트 / 美 대선(포드)  |               |
|           |     | A (+++)   | E (---)   | E' (+--)   |               |
| 1977-1992 | 우호  | 한미동맹 / 미군 철수 중단                                     | 中 납치 민항기 / 선린우호 관계 / 비공식 교류 증가                          | 지도자 / 국교정상화 / 8.17선언   | (유사) 로맨틱 삼국관계 |
|           | 비우호 | 미군 철수   | 북중동맹  |  |               |
|           | 적대  |   |   | 천안문 / 사회주의체제(소련, 동구권) 붕괴   |               |
|           |     | A' (+--)  | E' (+--)  | A' (+--)   |               |
| 1993-2001 | 우호  | 지도자 / 한미동맹  | 지도자 / 21세기지향 협력동반자 및 전면적 협력동반자 승격/ 김대중 대통령 방중/ 군사-안보 협력 | 지도자 / 포괄적 관여정책 / 정상 상호교차 방문 / 中의 WTO 가입 지원 / 양국 간 군사교류 재개 / 9.11 사건 / 6자회담 | 삼국 공존관계       |
|           | 비우호 | 지도자 / 북핵위기 시각차                                      | 북중동맹  |  |               |
|           | 적대  |   |   | 대만해협 위기 / 전략적 경쟁자 선언 / 베오그라드 대사관 오폭 / 미, 정찰기(EP-3) 추락                      |               |
|           |     | A' (+--)  | A' (+--)  | A' (+--)   |               |
| 2002-2008 | 우호  | 한미동맹  | 전략적 협력자 승격  | 6자회담 / 정상회담 / 미중 전략대화  | 로맨틱 삼국관계      |
|           | 비우호 | 지도자 / 대미 자주노선 / 여중생 사망 / 기지 조정 및 재배치 / 미군 파병 및 감축계획 | 북중동맹  |  |               |
|           | 적대  |   |   | 중국위협론  |               |
|           |     | E' (+--)  | A' (+--)  | A' (+--)   |               |
| 2009-2012 | 우호  | 지도자 / 한미동맹  |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 세계 금융위기 수습 갈등수습 노력   | 로맨틱 삼국관계      |
|           | 비우호 |   | 북중동맹  |  |               |
|           | 적대  |   | 2차 북핵실험 / 천안함 / 연평도                                     | 美 신안보 전략 / 대중 억지전략 가동 / 센카쿠열도 / 천안함 / 연평도 / 中 무기개발                         |               |
|           |     | A' (+--)  | A' (+--)  | E' (+--)   |               |

\* A: 우호적 관계, E: 적대적 관계;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사건에 +,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사건에 -를 부여했고, 그 결과에 따라 A, A', E, E' 로 분류했음.

단순히 사건들에 근거한 선호의 누적만을 보면, 미-중 간의 수교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미 간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양국관계’ 유형,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축 국가로 하는 ‘로맨틱 삼국관계’, 중국을 중심축 국가로 하는 ‘로맨틱 삼국관계’, ‘삼국 공존관계’ 그리고 미국을 중심축 국가로 하는 ‘로맨틱 삼국관계’로 변화해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전(1949-1976)에 나타난 삼국관계인 ‘안정적 양국관계’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관계가 설정됨으로써 일반적인 양국 간의 동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바꿔 말해 이 관계는 전형적인 동맹의 딜레마 상황(Snyder 1984, 461-95)에 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시기에 닉슨독트린과 미군철수를 통보받고도 한국은 대응할 방안이 없었다. 즉 한-미 간의 안정적인 양국 관계 상황에서는 미-중 관계가 보다 적대적이 되면,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 즉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한-중 관계도 악화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미-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면서 방기(abandonment)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철수는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소련에 대한 견제가 전략적으로 최우선시 되는 가운데 그런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해 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한국에 대한 공약은 등한시 된 것이다.

다른 한편 한-미 간의 안정적 양국관계에서는 중국으로 인한 직접적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체로 양국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제3의 국가는 안정적 양국관계를 붕괴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양국관계를 형성한 두 국가 중 한 국가에 대해 결합을 시도하거나 압박을 가할 것이다. 바꿔 말해 중국은 미국과 결합을 시도하거나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이전까지 해 오던 식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이 보다 부강해지고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에 보다 의존적이 되면서 ‘후견-피후견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로 전략할 위협이 있다. 이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Handel 1981, 132)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현재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안정적인 양국관계’를 지속하려 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확대 발전시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자주 형성되었던 ‘로맨틱 삼국관계’의 상황이 있다. 로맨틱 삼국관계에서는 당연히 두 개의 진영 국가들(wings)과 우호적 양국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축 국가(pivot)가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중심축 국가는 우호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진영국가들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유지시키면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심축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능력이 필요하다. 지난 기간 3국 사이에서 만들어졌던 로맨틱 삼국관계의 중심축 국가는 매번 달랐다. 한국 역시 미중 관계가 악화 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경우 중심축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현재처럼 강대국의 힘과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확대해 간다면 한국이 중심축 국가 지위를 확보하기는 거의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이 보다 많은 비용을 쏟으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 모두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심축 국가로서는 2개의 진영 국가들로부터 충성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교적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중국에 비해 약한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외교 관계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한-중 수교가 이뤄지고, 한미동맹과 한-중 교류가 확대되던 시기에 있었던 ‘3국 공존관계’가 있다. 이는 3국의 역량이 대등하고, 특정 국가가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3국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구조이다. 양국 간에 우호적인 관계에서 얻는 이득이 크고, 적대적인 관계에 소요되던 비용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한국을 포함한 삼각관계에서 공존관계란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보다 손실이 되는 부분이 더 커질 수도 있는 틀이다. 모겐소(Morgenthau 1973, 174-7)가 말하는 강대국 간의 경쟁 상태에 들어 가 있는 약소국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미-중 관계가 협력적이 될수록 이득의 비대칭성이 커질 수 있다. 가령 안보 면에서 한국은 역내 불안정성이 줄어들면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제 면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적은 이득을 획득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큰 이득을 얻은 국가들에게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부담을 요구받거나 중국으로부터 무역구조 개선을 요구받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공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간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각 국의 지도자들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확대 발전시켜 삼국 공존관계를 만들어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점차 미-중 간의 역내 경쟁의 가능성이 증대되어 가는 가운데, 한국은 이미 이들 양국 사이에서 영향력과 지위 확대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부터 한-중 관계는 빠른 속도로 확대발전해 왔다. 1992년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라고 규정되었던 한-중 관계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협력 동반자 관계’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 왔고(서진영 2006, 383-4),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2008년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가기로 합의했다(김홍규 2008). 이와 같은 발전에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호혜성, 지리적 인접성, 역사·문화적 친밀성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한국 간의 전략적 결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인 한국은 직접적인 외교 행위만으로 미국, 중국과 공통되는 당면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은 주어진 외교 관계를 협력적, 우호적으로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트머의 삼각관계 분석틀을 이용해 그동안 한국, 미국, 중국 3국이 형성해온 양국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 미-중이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중 관계는 한-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외교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자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중 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한-미 관계는 한-중 관계와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고, 대체로 정치지도자들의 외교 인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처럼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됨으로써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모두를 우호적으로 조성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그런 관계의 유지 여부는 지도자의 외교적 인식 또한 중요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전략과 지역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따금 지역전략이 포기 내지 양보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교관계 설정에 있어서 강대국 지도자의 외교적 인식과 의지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경우 지도자들의 의지가 확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반대나 여론에 따라 외교관계를 뒤바꾸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약소국의 경우에는 외교적 인식이 부족한 지도자가 집권하고 있는 경우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일반화해 보면,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그 강대국들과의 양국 관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외교관계를 통해 국익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약한 국가를 중심축 국가로 하는 '로맨틱 삼국관계'나 '3국 공존관계'의 외교 관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강대국들 간의 주어진 외교 관계를 활용해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강대국의 세계전략과 지역전략을 파악해 외교 관계를 설정해 국익을 취해야 하며, 그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효과적인 정책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김명섭. 1999. “1970년대 후반기의 국제환경변화와 한미관계: 카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1-92.
- 김연수. 2007. “남-북-미 삼각관계의 형성의 기원과 갈등: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53집, 79-106.
- 김중섭. 2011.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2011-9 (3월).
- 김홍규. 2008.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과 한중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여름호, 87-105.
- 김홍규. 2009. “중국의 동반자외교 소고: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여름, 287-305.
- 김홍규. 2012.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전망: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기회와 도전』 통일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1-49.
- 박영호. 2004.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서울: 통일연구원.
- 박창권 외. 2010.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서보혁. 2008.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관한 연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2호, 63-85.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외교 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 신상진, 허시유. 2013. 『한·중 교류 협력 발전사: 수교 이후 정치·경제 관계』 서울: 이매진.
- 이동률. 2002. “수교 이후 한중 정치 관계의 회고와 전망,” 『중소연구』 통권 95호.
- 이상숙. 2009.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9집 5호, 129-148.
- 이정남. 2010. “조화세계(和諧世界)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질서 구상: 중화질서(中華秩序)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 이태환. 2013.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서울: 한울아카데미.

- 차상철. 2004. 『한미동맹 50년』 서울: 생각의 나무.
- 최운도, “미·중·일 삼각관계와 그 역학에 관한 시론,” 『韓國政治學會報』 제37집 3호(2003), pp. 175-195
  
- Brams, Steven J. 1969. “The Search for Structural Orde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ome Models and Preliminary Resul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13, No.3 (September), 254-280.
- Buss, Clause A. 1982.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for Policy* (Stanford, CA: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se, Michael S. 2012. "China's Search for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hina Brief* Vol.XII, Issue 17, 12-16.
- Cohen, Warren I. 2010. *America's Response to China: A History of Sino-American Relations* 5th e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ittmer, Lowel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33, Issue.4, 485-515.
- Dittmer, Lowell. 1992. *Sino-Soviet Normalization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1945-199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Handel, Michael. 1981.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otowa, N.J: F. Cass)
- Hao, Jia and Zhuang Qubing. 1992.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32, No.12, 1137-1156.
- Harding, Harry. 2004. *The India-China Relationship: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kno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ng, Sung-Hack. 2011. *Korea's Foreign Policy Dilemma: Defining State Security and the Goal of National Unification* (Folkestone: Global Oriental)
- Kissinger, Henry. 1979. *White House Years* (Boston: Little, Brown).
- Lampton, David M.. Lampton. 2008. *The Tree Faces of Chinese Power: Might, Money, and Min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ndelbaum, Michael. 1988. *The Fate of Nations: The Search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 James. 2000. *About Face: a history of America's curious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Nixon to Clinton* (New York: Vintage Books).
- Mo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Nixon, Richard. 1967. "Asian After Vietnam War," *Foreign Affairs*, Vol.46, No.1, 113-125.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5.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Ross, Robert S. 1999. "Engagement in US China Policy," in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Routledge).
- Schweller, Randall L. 1998. *Deadly Imbalances: Tripolarity and Hitler's Strategy of World Conque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ecretary of Defense.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 Shambaugh, David. 1997.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operation or Confrontation," *Current History*, Vol.96, No.611, 241-246.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5. *SIPRI Yearbook 201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University Press)
- Stueck, William. 2002.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tter, Robert S. 1996. *Shaping China's Future in World Affair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Sutter, Robert S. 2013. *Foreign Relations of the PRC: The Legacies and Constraints of China's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1949* (Plymouth, UK: Rowman and Little Publishing Group)
- The White House. 2009.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Hu Jintao of China Before their meeting," G20 Meeting in London (April 1).
- U.S. Department of Defense. 1992.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199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 Yi, Xiaoxiong. 2000. "Dynamic of China's South Korea Policy: Assertive Nationalism, Beijing's Changing Strategic Evalu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Korea Factor," *Asian Perspective*, Vol.24, No.1, 71-102.
-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 Zoelick, Robert B. 2005.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Vol.16, No.4 (September 21), 5-14.
- 동아일보, "中 '달려 안정돼야' 美, '中투자 안전'" 2009년 7월 29일자.
- 연합뉴스, "중외교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 2008년 5월 27일자.
- 연합뉴스, "클린턴-中총리, 손자병법으로 상생 강조" 2009년 2월 21일자.
  
- 한국무역협회 사이트,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 Carter, Jimmy. 1997. "United Nations-Address Before the General Assembly" (March 17),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7183>.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5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5 (January 01, 2015)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index.aspx>
- New York Times, "Mao Asserts U.S. Can Win Amity of Red China by Leaving Taiwan," Feb. 21, 1964, <http://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9505EED61530E033A25752C2A9649C946591D6CF>
  
- "Clinton warns against isolating China," CNN, April 7, 1999. <http://edition.cnn.com/ALLPOLITICS/stories/1999/04/07/clinton.china/>
- "习近平: 让命运共同体意识在周边国家落地生根" 〈新华网〉 (2013. 10. 25,)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10/25/c\\_117878944.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10/25/c_117878944.htm)
- "习近平同奥巴马通话 担忧马航失联客机人员安危" 〈新华网〉 (2014. 3. 10.)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10/c\\_119690265.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3/10/c_119690265.htm)
- "习近平十八届中共中央政治局常委同中外记者见面" 〈新华网〉 (2012. 11. 15.) [http://news.xinhuanet.com/18cpcnc/2012-11/15/c\\_113697411.htm](http://news.xinhuanet.com/18cpcnc/2012-11/15/c_113697411.htm)
- "习近平总书记深情阐述 '中国梦'" 〈新华网〉 (2012. 11. 30.)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11/30/c\\_124026690.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11/30/c_124026690.htm)

- 戴秉國, “堅持走和平發展道路,” 〈中國新聞網〉 (2010. 12. 6.)  
<http://www.chinanews.com/gn/2010/12-07/2704984.shtml>
- 李紅旗·段吉勇, “溫家寶哈佛演講 提出廣泛文明對話和文化交流” 〈新華網〉 (2003. 12. 11.)  
[http://news.xinhuanet.com/world/2003-12/11/content\\_122482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03-12/11/content_1224824.htm)
- 丁寧, “習近平: 推動各大國客觀理性看待彼此戰略意圖” 〈人民網〉 (2012. 7. 7)  
<http://politics.people.com.cn/BIG5/n/2012/0707/c70731-18465859.html>
- 胡錦濤, “努力建設持久和平 共同繁榮的和諧世界” 〈新華網〉 (2005. 9. 16.)  
<http://www.china-un.org/chn/zt/snh60/t212365.htm>

● 투고일: 2015. 4. 2.    ● 심사일: 2015. 4. 6.    ● 게재확정일: 2015. 4. 19.

| Abstract |

## **The research on the change of diplomatic relations in strategic triangle**

**June Young Mo**  
(Korea University)

China has so far showed a remarkable ability to grow. China is now the second economy in the world as measured by national accounts, and the rise of China is not a distinct possibility anymore. Thanks to sustained double digit increases in the size of its military budget, China's arms forces have also advanced in capability and reach. As the gap between China and the U.S. has narrowed the Sino-U.S. relations have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Korea finds itself in the perilous international position surrounded by great powers. Korean cannot choose but seek appropriate foreign strategies to survive in that situation. However Korea is the weaker than other neighboring states when exerting foreign capability. Diplomatic relations, favored or cooperational foreign relations compensate for that weakness.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s that have happened in Sino-U.S. relations and their impact on diplomatic relations among the U.S., China and the Korea through the logic of Dittmer's strategic triangle, and then classify events which took place in each period into one of the *Ménage à Trois*, Romantic Triangle, and Stable Marriage. After explaining each configurations, I suggest that Korea should complement the existing foreign relations towards neighboring great powers.

**<Key words>** China's Rise, Weak State, Strategic Triangle, Dittmer, Korea's Diplomacy